



2019년 10월 13일(제950호) 연중 제28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감사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삶에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통이라도 누구에게는 불행이 되고 누구에게는 은총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러한 차이는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때문입니다.

고통에 감사하게 되면 고통은 은총으로 바뀝니다. 감사함이 있으면 잃으면서도 얻게 되지만, 감사함이 없으면 얻으면서도 잃게 됩니다. 감사함이 있으면 못 가져도 행복하지만, 감사함이 없으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합니다. 돈이 있어 행복한 것도 아니며, 건강이 있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열 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외칩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흔쾌히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은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이는 단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들 중에 구원에 이른 감사할 줄 아는 이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함께하는 이 등 참으로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당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오늘 감사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난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치유는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다시 치유의 순간이 필요해질 이들 말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자비와 은총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 신앙인들은 배은망덕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을 통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실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



동용택(테오필로) 신부
동해(22사면) 성당 주임

제 1 특 시

2열왕 5,14-17

회 답 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 2 특 시

2티모 2,8-13

복음 본보송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복 음

루카 17,11-19

영 성 제 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이국승 바오로



성인명: 이국승 바오로 (李國昇 Paul)

신분: 양반, 신생, 동정 순교자

활동연도: 1772-1801년

‘성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이국승(李國昇) 바오로는 충청도 음성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충주로 이주해 살았다. 호는 ‘미암’(靡庵)이다. 장성한 뒤 충주 지역에 전해진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게 된 이 바오로는, 이 새로운 종교를 철저히 배우려고 경기도 양근 땅에서 살던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에게서 교리를 배우고는 은총으로 마음이 움직여 즉시 교회의 본분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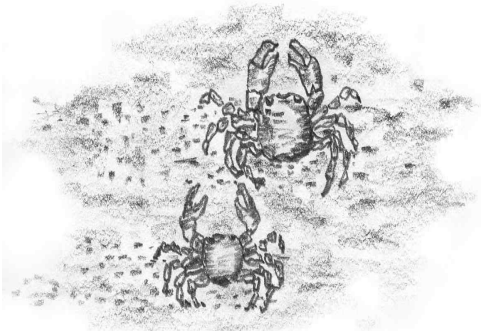
집으로 돌아오자 이 바오로의 스승은, 그를 불러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아직은 순교에 이를 만큼 신앙이 굳건하지는 않았다. 1795년의 을묘박해가 일어난 뒤, 충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형벌을 받던 도중에 석방된 사실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온 이 바오로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보속하려고 전심전력을 다하였다. 또 부모가 혼인을 시키려고 하자, 가족 때문에 본분을 다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혼인을 거부하고 동정을 지키며 살기로 작정하였다. 그럼에도 부모들의 재촉은 계속되었고, 그는 이를 피하고자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 이 바오로는 혼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전하였다. 또 최창현 요한, 정약중 아우구스티노 등 교회의 지도층 신자들과 함께 교리를 익혔으며 열심히 교회 일을 도왔고,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만나 성사도 받았다. 이 바오로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 포졸들은 체포된 신자들에게서 그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 이때부터 포졸들은 이 바오로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으며, 곧 그를 체포하여 포도청으로 압송하였다. 포도청으로 압송되면서도 이 바오로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 바오로가 옥에 이르렀을 때, 마침 황해도 출신의 고광성이 배교하고 옥문을 나서려 하고 있었다. 이에 이국승 바오로는 그에게 “배교한 것은 제가 아니고, 마귀가 저를 속여 저의 입을 빌려 말한 것입니다.”라고 관장 앞에 나가 말하도록 권면하였으며, 고광성은 여기에서 힘을 얻어 순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바오로 또한 형벌과 문초를 받는 동안 여러 차례 고광성과 같은 일을 겪어야만 하였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바오로의 진심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가 여러 차례 유감을 느끼도록 한 뒤에야 신앙을 굳게 증언하고, 사형 선고를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한 힘을 내려 주셨다. 결국 이 바오로는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에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런 다음 며칠 후에 충청도 공주로 이송되어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29세였다.

복 음 묵 상

- 베냐민(베드로) 신부 / 예수회

계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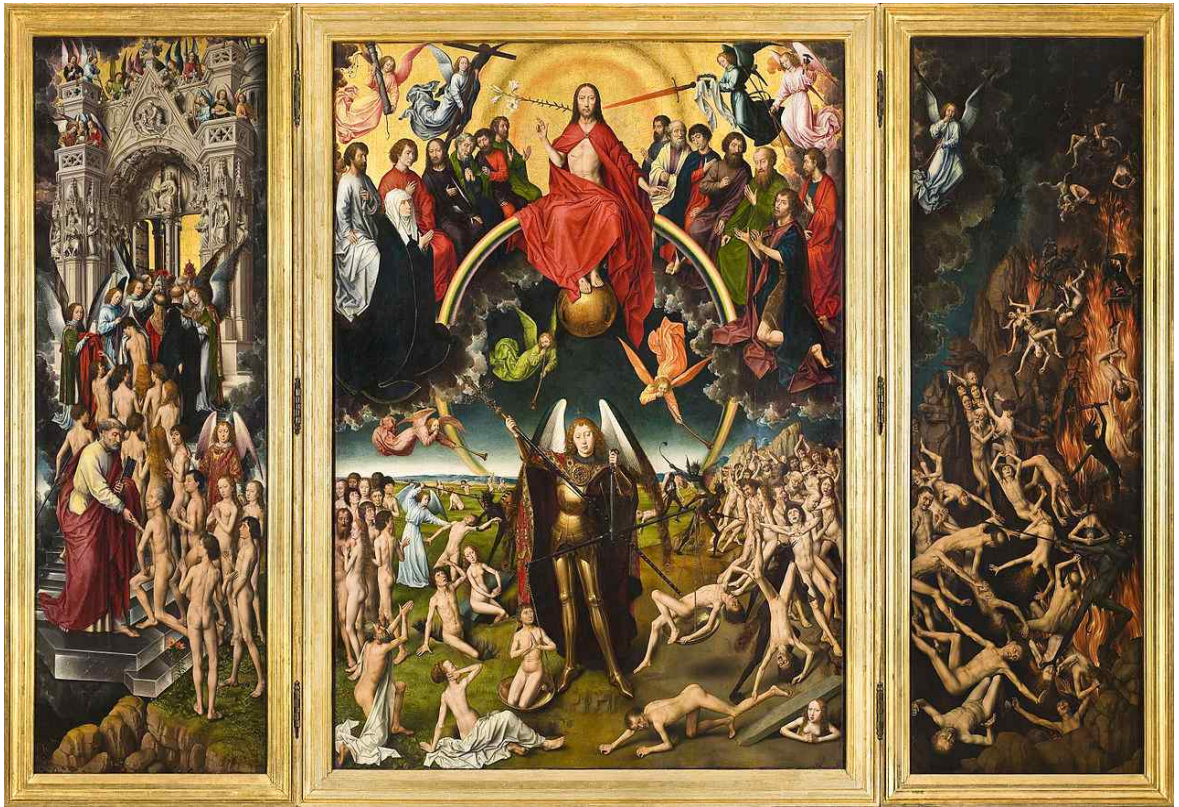
본 것이
이것뿐입니다.
내 약함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간 이를,
내 약함을,
이제
맞하지 않으렵니다.

가로지만,
계걸음이지만,
님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울겨 봅니다.

상화이야기

최후의 심판



한스 멤링, 1467~1471년경 제작
 나무 위 유화, 중앙:221x161cm, 양쪽 패널:223.5x72.5cm
 단스크 미술관, 폴란드

중앙패널만 가로 2m가 넘는 대형 제단화로, 브뤼헤에 거주하던 피렌체 은행가가 결혼 기념으로 주문한 그림이다. 그러나 브뤼헤에서 제작된 이 그림이 이탈리아 피렌체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폴란드군이 이 그림을 실은 함선을 정치적 이유로 나포하였고, 따라서 피렌체 대신 폴란드 단스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멤링의 초기작이나, 최고의 작품이라고도 평가받는 이 작품은 중앙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과 대천사 미카엘, 오른쪽에 죄인들이 향하는 지옥, 그리고 왼쪽에 선인들을 위한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중앙화와 양쪽 패널은 알몸으로 부활하는 영혼들이 반원형으로 그려지면서 구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하(벨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8주일: 생기브리엘 이지복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때·곳: 10월 14일(월)~18일(금), CBCK

- 화랑(11사단) & 맹호(수기사) 성당
 신임신부 방문
 때: 10월 18일(금)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